

해외 학교 무용교육 정책 및 방향

* 이한주, **양승연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우리나라 무용교육 현황
	III. 해외 학교 무용교육 정책 방향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2.07.30.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스포츠교육학 박사과정 연구원
논문심사일 : 2022.08.09.

게재확정일 : 2022.09.05.

Overseas school dance education policy and direction

Lee, Han-joo · Yonsei University

Yang, Seung-yeon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ance education with foreign cases through dance and the national curriculum in Korea. The possibility of dance education as an independent subject was examined by analyzing data and report documents from the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NCIC) of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IC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dance education in Korea is not virtually guaranteed the number of hours of classes, composed within the scope of physical education under the Education Act. Second, many countries recognize dance education as one of arts educ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get the academic debate of danceology between pure arts and popular arts for a while and gradually organize environmental factors not to lose their academic identity. It is hoped that dance education will be reorganized as one of the arts subjects in the upcoming changes in Korea's education policy, such as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the 2025 high school credit system.

<key words> curriculum, global country comparison, P.E.(physical education), independent curriculum

<주요어> 교육과정, 해외국가 비교, 체육, 독립교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 무용은 정식 교과가 아닌 체육학의 한 영역으로 교수되고 있다”(이한주, 양승연, 2022:185). 현재 체육교과는 초중등학교 정규교과목으로서 10여차례 이상 개정·개편되면서 단 한 번도 제외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과교육을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교과의 교육목표는 5개 대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현재 “무용단원을 흡수하여 ‘표현’으로 명칭을 변경·개정하고 있다”(홍애령, 조미혜, 2019:553). 그러나 무용은 기존의 음악, 미술 등 문화와 예술의 범위 안에서 오랜 기간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몸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러한 무용의 역사와 가치를 우리나라는 단순히 체육의 한 영역으로 간과하여 무용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에 왜곡시키고 있다.

일찍이 많은 국가들은 예술교육의 힘을 인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술교육은 창의적 능력을 지닌 인간, 바른 가치관을 지닌 자율적인 인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개성을 지닌 인간, 사회에 화합되는 인간을 양성·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교육은 예술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고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지난 2004년 유네스코(UNESC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4%의 국가들이 예술교육을 필수교과로 정하고 있으며, 응답 국가 중 90% 이상이 미술과 음악을 예술교과군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어 “70% 이상은 무용, 연극, 조각 등도 포함하고 있다”(백령, 2007:162). 이는 많은 국가들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교육의 범위를 단순히 음악과 미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교육과정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9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근거로 학교예술교육을 엘리트교육이 아닌 보편교육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교육의 하나로 인정받아야 할 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체육교과의 일부이자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정책 즉, 예술강사에 의해 비교과 교육활동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음악과 미술만 예술교과로 인정하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에 ‘연극’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에 무용교육도 체육교육의 한 일환이 아닌 예술교육으로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체성 확립은 결국 대학교육 즉, 학문과 학과의 존폐위기의 붕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백현순, 2021:1033). 이는 다가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 고교학점제 등 변화될 교육정책에서 무용이 교과목으로 인정·생존해야 할 명분이자 이유가 됐다.

한편, 해외 학교 무용교육을 살펴보면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무용을 표준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 내 의무과목으로 지정하여 체육교과에 포함시키고 있다”(최보연, 김병주, 2013:273). 더욱이 2000년대 들어 “독일 국가에서는 무용 수업이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무용을 독립교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20:28). 그리고 “뉴질랜드도 2001년 이후부터 ‘The Art in the New Zealand Curriculum’을 근거로 무용을 학교예술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며”(백연, 2016:53), “러시아 역시 정규교육과정내 ‘보편교육시스템’으로 예술교과를 모두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태진미, 2011:1020). 또한 프랑스는 무용을 예술과목의 핵심교과로 다루고 있으며 선택교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일랜드는 무용을 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 무용을 정규교육과정 내의 예술교육과 별도로 교과 외 예술교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용교육은 막상 예술 중·고등학교와 영재학교 예술전공 영역으로 선발·운영하고 있을 뿐, 막상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체육학 범위의 학문으로 축소·간주하고 있다.

“예술교육은 ‘예술의 교육(education of arts)’,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 ‘예술로서 교육(education by arts)’, ‘예술에 관한 교육(education for arts)’ 등으로 구분된다”(Bamford, A., 2006, 백령 역, 2007:9~10).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교육의 독립성을 학계와 무용계가 지난 2000년부터 끊임없이 무용교육제도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김말복, 2003; 김화숙, 2004; 홍미영, 2004).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전문교과에서 무용교과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차은주, 2014; 신은경, 2016:12). 기존 연구 또한 체육학과 무용학의 정체성 분리의 타당성 또는 당위성을 중심으로 독립교과로서 무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이 학생들에게 체육교과와 다른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다는 교육 효과를 입증한 현장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처럼 무용교과가 여전히 독립교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과 중등학교 ‘체육’ 교과의 목표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시를 앞둔 지금까지 무용과 체육이 엄연히 다른 영역 또는 교과임에도 비정상적인 교육구조 즉, 체육교과 내의 영역으로 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 7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학문과 학과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무용학이 체육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하나의 예술로 밝아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해외 무용교육 정책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 우리나라 무용교육 현황

1. 체육교과 > 무용교과

우리나라에서 무용교육은 해방 이후, 10여차례 교육과정이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체육교과 영역 범위에 포함되어 독립교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이한주, 양승연, 2022:195). 이러한 모호하고 위태로운 학문으로서 정체성 및 독립성을 얻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교육과정이 대학입시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과 및 예술/체육교과가 주요 교육으로 인식되지 못하게 되면서 무용교육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 이후, 무용이란 용어 대신 체육교과 5개 대영역 중 하나인 '표현'을 통해 사실상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전문교과 I 의 예술계열 과목으로 무용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전문교과 I 은 일반고등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 대다수 고등학생들은 체육수업을 통해 표현활동이라는 교과수업으로 무용수업을 배워야 한다. 이는 “무용교육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체육교과 범위 내에 존재하는 창의적체험 활동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전하운, 정재영, 2020:45).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학교 무용교육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부턴 학습하게 된다. 체육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무용교육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리고 내용체계, 성취기준, 평가 모두 동일하다. <표 1>은 우리나라 무용 교육목표를 체육교과 대영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리한 내용이다.

표 1. 우리나라 무용과 교육목표

학년	교과목/영역	교육목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즐거운 생활	건강한 몸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길러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한다.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체육/표현활동	표현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수행하며 심미적 안목을 갖는다
고등학교 1학년 ~ 3학년	체육/표현활동	신체 표현 문화를 이해하고 신체 표현 양식과 창작의 원리를 작용하여 느낌이나 생각을 신체로 표현하며 심미적 안목을 기른다.

출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018:3-62)

2. 무용수업 시수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무용교과 수업시수는 ‘체육’이나 ‘즐거운 생활’처럼 특정 교과에 포함되어 배당하고 있다. 미술, 음악, 체육 등 세 교과가 통합된 즐거운 생활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이라면 고학년 즉,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체육교과에서 배분된 수업시간을 통해 무용교육을 학생들은 학습한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무용수업을 예술의 하나가 아닌 학문의 유사성을 근거로 체육의 범위로 인식하여 예술적 가치를 단순히 신체활동의 일환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무용교육 시수를 살펴보면, 무용교과 시간 배당이 가장 높은 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평균 20.4시간을 학습할 수 있는데 반해 가장 낮은 학년은 고등학교로 평균 9.4시간을 수업시수로 배당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무용수업을 한 학기 기준 매주 2회씩 10주에 걸쳐 무용수업을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등학교 역시 동일기준으로 적용하면, 매주 2회씩 4주 남짓 무용수업이 진행되어 축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용 수업시간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결국 대학입시 즉, 수능에 필요한 주요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구조와 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양질의 무용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유년기 시절부터 체계적인 무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체육교과에서 벗어나 예술교육으로 인정받아 독립된 시수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표 2>는 우리나라 무용교육 시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우리나라 무용교육 시수

학교급	학년	교과목	교과시수	무용 시수
초등학교	1학년	즐거운 생활	192시간	12.8시간
	2학년			
	3학년	체육	102시간	20.4시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체육	90.7시간	18.1시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체육	47.3시간	9.5시간
	2학년			
	3학년			

출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018:95-104)

Ⅲ 해외 학교 무용교육 정책 방향

무용을 예술의 독립성으로 보는 국가들은 체육과 예술교육 사이에 무용을 하나의 예술교육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무용교육의 교육적 효과가 단순히 전인교육으로 단정하기에는 역사와 작품성 등 예술로서 인정·평가받는 요소가 다분히 녹여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예술교육의 특성상, 기존에 음악과 미술 뿐만 아니라 무용도 하나의 예술교육으로서 전문성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학교와 영재학교에서는 전공으로 음악, 미술, 무용을 고정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학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용교육을 예술교육으로 교과목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뉴질랜드, 러시아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문적 또는 교과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일수록 창의성과 상상력 증진을 이유로 무용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보편교육을 추구하면서 공교육을 중심으로 예술문화분야를 주도하는 국가부처와 협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개할 해외사례들은 무용을 예술로서 인정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용교육의 예술교육 범주 관점에서 정리했다. 전통적인 예술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무용을 체육교육보다는 예술교육의 하나로서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1. 프랑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학교 정규수업 문화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지난 1983년부터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교과수업으로 개설하면서 교사와 예술가들이 연계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988년 예술교육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이래로 “2000년부터 프랑스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을 공표함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예술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이경연, 2016:6). 특히 “초등학교 예술교육은 시각예술과 음악을 필수교과로 지정하면서 무용, 영화, 건축 등이 예술교육의 교과로 포함시키고 있다”(조희연, 2011:48). 이처럼 “프랑스의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은 예술을 더 이상 다른 과목의

부수적인 역할이 아닌 창의성을 신장하고 문화적 획일화를 탈피하는 주요과목으로 강조하여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전주현, 2005:18).

지난 2005년 프랑스 문화부와 교육부 양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예술문화교육에 관한 공동정책 활성화 방안’ 정책을 공포했다. 이어 학교 재정비를 위한 2013년 7월 8일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교예술교육이 법률적 지원 대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프랑스의 예술문화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예술적 인재를 배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목적에 부합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프랑스 교원양성원(IUFM)에서 예술교과 이외의 교사들도 영화, 시청각, 무용, 미술사, 연극 등 예술문화교육수업을 위한 선택교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조희연, 2011:46). 이에 따라 프랑스는 더이상 무용을 체육의 하나의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순수예술 즉, 예술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정책 및 법령에 의해 모든 프랑스 학생들에게 학교 내외에서의 문화 예술 예술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2. 영국

전주현(2005:17)은 “영국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청소년들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력과 감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평가, 결정적 의사표현 능력” 등의 습득이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예술교육을 엘리트 교육이 아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근거로 공교육을 통한 보편교육으로 접근하여 다가올 미래교육 변화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영국 정부의 공적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영국의 학교예술교육은 담보 상태이다.

현재 영국의 학교예술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위한 예술교육을 시각예술, 공예, 음악, 연극, 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Art & Design’과 ‘음악’은 초·중등교육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연극은 영어교과, 무용은 체육교과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무용대신 연극을 예술교육에 포함시킨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점이다. 그리고 학교 정규교과 외에 예술교육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 예술교육은 ‘Bridge Organisation’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예술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예술교육 특히 무용교육은 체육의 하나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등교과

과정 3년에 해당하는 'Key stage 3'부터 무용교육 관련 활동을 체육교과에 포함하여 제공할지 여부를 전적으로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무용교육의 통합적인 교육 시수는 '음악'과 '미술·디자인' 과목에 비해 상당히 높으나 체육교과 내에서 무용활동의 비중이 얼마나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표 3>은 영국의 교육과정 단계별 문화예술수업 시수를 비교·정리한 것이다.

표 3. 영국 국가수준 교육과정 단계별 문화예술수업 시수 현황

구분	교과목	주당 교육시수	연간 총 교육시수
Key Stage 1 (초등교과과정 2년)	영어(연극)	5시간 ~ 7시간 30분	180~270시간
	미술·디자인	50분	30시간
	음악	50분	30시간
	체육(무용)	1시간 15분	45시간
Key Stage 2 (초등교과과정 4년)	영어(연극)	5시간 ~ 7시간 30분	180~270시간
	미술·디자인	55분	33시간
	음악	55분	33시간
	체육(무용)	1시간 15분	45시간
Key Stage 3 (중등교과과정 3년)	영어(연극)	3시간	108시간
	미술·디자인	1시간	36시간
	음악	1시간	36시간
	체육(무용)	1시간 30분	54시간

출처: 주영국한국문화원(2016:4.)

3.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교육부와 문화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술 교육 정책 전담기관으로 예술 위원회(Art Council)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Long, S. D., 2015:270). 이러한 부처간 협력은 통합기관의 정책 일원화와 사업영역의 확대 효과를 가져와 다양한 기금과 예산지원을 통해 예술교육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전환학년제(tranition year)를 도입하고 있는 아일랜드 교육구조는 이러한 예술교육을 숙련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를 담당하는 NCCA(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와 연계하여 학교 예술교육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관의 부처 간 협업과 지역사회의 연대는 자칫 프랑스와 유사할 수 있으나 예술 위원회의 재정자립을 통해 건강한 예술교육을 학교교육에 뿌리 내리고 있다.

아일랜드 예술교육은 음악과 미술을 기본교육으로 정하면서 무용, 연기, 조각 등의 예술교육은 선택교과와 전환학기를 통해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교육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아닌 학교의 재량에 맡긴 것이다. 비록 무용교육이 필수교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예술교육의 하나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4. 핀란드

핀란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의무교육으로 초등교육을 9년제에 따르고 있으며 기초교육과정동안 연간 주당 최저 수업시수는 222단위이며, 그 중 예술 및 실용과목 수업시수는 62단위이다. 그리고 고등교육 즉, 이차 교육(secondary education)에 해당하는 두 번째 학제에는 직업교육 중심의 실업계와 인문계로 이원화되고 있다. 이에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예술교육을 집중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정부터 구성하고 있다. 보통 “한 학년은 5학기로 나뉘며, 학교생활동안 예술 영역에서 주당 5시간만큼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 무용수업이 포함되고 있다”(김상훈, 2018:2). 매 학기가 종강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수업이 없는 시험기간을 정해 한 과목씩 시험을 치른다. 일례로 저학년 교과활동으로 현대무용을 배우며,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발레수업도 학교교육으로 제공받는다. 이는 체육의 일환으로 보는 여느 국가들과 달리, 핀란드는 비예술교과과목을 공부할 때 예술교과를 통합하거나 융합하는 수업을 활성화하며, 무용을 정규교육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예술교육이자 보편교육으로서 접근·보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5.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무용을 예술교과로 편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에 뉴질랜드 무용 교육은 국가수준에서 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 학교교육에서 필수영역의 학습을 권장한다.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은 반년간 12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백경선, 2013:67). 그리고 무용을 체육교육이 아닌 예술교육으로 교육과정에 편성함으로써 교과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학습으로 ‘뉴질랜드 교육에서 예술(The Art in the New Zealand Curriculum, 2000)’의 성명서 내에 무용이 명확한 정책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핵심필수과목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무용은 1-8학년까지 필수과목이며, 9-13학년까지 각 학교마다 선택방식으로 구성되었다”(Hong, C. M., 2002:8-9). 더욱이 자국 내 46개 대학 입학 관련 과목으로 무용교과를 승인하고 있어 고교-대학 간의 수업 연계성이 높아

예술교육의 틀 안에서 정체성과 자립성에 다른 교육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체육교과안에 표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학교육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용학과 달리, 뉴질랜드는 학문의 발전 및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실 있는 학교수업을 교사와 학생 모두 경험할 수 있다.

6. 독일

1990년 독일은 통일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8년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는 BMK(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이 신설되면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음악학교, 예술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최수현, 2018:26). 다만 독일의 예술교육은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음악교육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음악 외에 예술교육은 모두 교육과정에 선택교과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문화예술교육은 공교육이자 의무교육인 기초학교(grundschule)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Mensch, Natur und Kultur’과목을 4년간 주당 6시간씩 총 2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목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무용도 포함되어 있어 예술교육을 하나의 통합교육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물론 대학입학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김나지움gymnasium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입시처럼 Arbitur 시험 위주로 구성하고 있어 주당 1-2시간 배당한 음악과 Arts and Cultural Education을 제외하고 예술교육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7. 러시아

러시아의 교육은 모든 분야에서 공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예술교육 정책은 보편교육보다는 여전히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11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법 83호’를 공포한 이래, 학교가 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슈콜라(школа)’라고 부른다. 초등교육의 경우, 3R's와 사칙연산처럼 기본적인 교육을 학습시킨다면 중등 5년 과정은 생물, 화학, 물리, 문학, 역사 등 지식과 소양을 쌓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을 9학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후부터 대학진학과 직업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학진학에 필요한 입시준비기간인 고등

학교 2년 동안은 전공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슈콜라를 제외하고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조기교육 즉, 영재 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있다. 음악학교는 국가기관이라 무료로 다닐 수 있으나 다른 예술교육들은 학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이 보편교육과정으로 학교 내에서 교육되고 재능 있는 학생은 국가에서 무료로 심화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규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의 조정을 바꿀 수 없음을 고려하여 예술교육과정 모두를 하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무용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발레학교를 중심으로 무용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엘리트 교육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나 예술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음악, 미술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무용수업을 체육의 틀에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무용과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무용교육의 현주소를 해외사례와 함께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자료와 보고서 문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독립교과로서 무용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는 첫째, 우리나라 무용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둘째, 무용교육을 바라보는 해외 국가들은 어떠한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었다. 현재 프랑스는 무용이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문화예술로서 보전하고 진흥시키며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무용을 통해 리듬을 익히게 하고 운동성을 훈련하도록 하여 심화활동과 선택활동을 통해 예술과 문화를 접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강대국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뉴질랜드 무용은 국가교육과정의 중요한 핵심 역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다른 영역과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전인교육을 가지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일랜드 무용은 정규교육 시스템으로 예술에 우선권을 두며 예술의 중요성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핀란드 무용에서는 예술교육의 삶의 질과 공교육에 신뢰도가 높다. 한편 러시아는 무용을 전문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분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발레학교 중심으로 정통을 유지하며 세계 발레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무용을 체육에 포함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부터는 무용을 독립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졸업시에는 무용시험을 치르게 하고 성적은 대학 입학시험에 반영한다. 이는 무용 수업이 심도 있게 교육이 되고 제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용교육을 선도해온 독일의 경우 학생들과 무용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무용 교육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문화와 예의 영역을 일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배상원(2017:66)은 “국립무용교육기구(NDEO)에서 발표한 국가핵심 예술교육기준을 근거로 지난 2014년에 개정된 교육기준을 연구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무용교육은 수업목표 면에서 세부적인 목표 및 주체적인 태도를 양성하는 목표제시가 부족하고, 수업내용 면에서는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년별로 학습이 심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체험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무용이 체육교과의 신체 활동의 영역에서 운영되다보니 무용교육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 현행 시스템에서 무용과 체육을 움직임의 대상의 한 덩어리로 보아 무용을 체육의 일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상 엄연히 무용은 어디까지나 예술의 영역으로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분야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살리고 무용교육의 위치와 교육방향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교과독립의 당위성과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질문 첫째, 우리나라는 교육법상 무용교육이 체육교육의 범위 안에 구성되어 있기에 사실상 수업시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용어뿐만 아니라 시수 등에서도 체육교과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예술문화 활성화의 나라들은 무용교육을 예술교육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과정안에 예술이 포함되어있지만 예술교과의 영역에는 음악, 미술뿐이고 무용은 체육 교과안에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체육교육과정안에 한 영역으로 교육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뉴질랜드처럼 예술교육을 음악, 미술로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창의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의 예술교과처럼 확대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무용교육의 관점에서 해외 예술교육 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예술문화 활성화의 나라들로 손꼽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인 무용교육은 체육교과의 틀안의 하나로 되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미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용’ 용어 대신 ‘표현’으로 변경된지 오래이며, 신설된 ‘연극’ 교과는 미술, 음악과 함께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하나로 새로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교직이수로만 발급되던 ‘연기’ 교과 교원자격증도 예술교과로

인정받음에 따라 최근 교육대학원 ‘연기교육학과’ 전공 신설에 이어 학부에도 학과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예술교육 특히 연극교육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에서도 무용교육을 체육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예술처럼 그 자체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의 형태로 전달하고 조직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사태, 학력인구 감소 등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대학가에서 순수예술학문의 위기가 심각해진 요즘, 무용학의 정체성 혼란은 통폐합에 따른 폐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70여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무용학이 다가올 미래학교에서도 학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예술문화 활성화의 나라들처럼 예술교육의 하나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 예술문화 활성화의 사례처럼 정부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또는 법률을 신설하거나 간결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무용교과 교원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으나 막상 학교현장에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이는 현행 교육법상에서 무용이 체육교육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편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용은 기술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와 상상력을 교육시키고,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의 개발을 돕는 학문이자 교과목이다. 그러므로 무용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술교육 영역 안에서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다가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 고교학점제에서 무용이 예술교육 교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존 명분으로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말복(2003), “무용교과 독립을 위한 방안”,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11(11)**, 1-15.
- 김상훈(2018), **핀란드의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 실시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 김희숙(2004), “초, 중등 무용교과 독립의 정당성과 방향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5(2)**, 1-14.
- 박종호(2005), “학교 교육과정 내 무용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3)**, 5-22.
- 배상원(2017), “한·미 초등 무용교육과정 분석 및 비교: 한국의 2015 개정 무용교육과정과 미국의 2014년 국가핵심예술교육기준(NCAS)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경선(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연구보고 CRC: 2013-1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백연(2016), “뉴질랜드 무용교육 현황분석을 통한 한국 초·중등 학교무용교육의 발전방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3)**, 45-71.
- 백현순(2021), “무용학의 위기와 생존 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033-1037.
- 신은경(2016), “학교 교육과정 내 무용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3)**, 5-22.
- 이경연(2016),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ORM, 2016-46-24.
- 이한주, 양승연(2022), “무용계열학과 교과과정 비교연구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1)**, 183-197.
- 전주현(2005), “예술교육으로서의 중등 무용교육과정 모형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하윤, 전제영(2020), “한국과 호주의 무용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2)**, 39-61.
- 조희연(2011), “공교육으로서의 프랑스 예술문화교육 정책 고찰”,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연구 9(2)**, 41-56.
- 차은주(2014), “체육·예술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의 가치체계 탐색 및 발전방안”,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53(4)**, 467-480.
- 최보연, 김병주(201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과 과제: 영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 24(4)**, 259-280.
- 최수현(2018), “독일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어린이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태진미(2011),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왜 예술교육에 주목하는가?”, 한국영재학회, **영재교육연구 21(4)**, 1011-1032.
-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20),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 홍미영(2004), “무용교과 독립의 당위성과 현행체육교과의 문제점-현행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연구 22**, 27-48.
- 홍애령, 조미혜(2019), “역량중심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표현 영역의 내용체계 및 역량 요소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551-571.
- Bamford, A.(2006), *The Wow Factor: Global research compendium on the impact of arts in education*, 백령(역, 2007), **예술이 교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서울: 한길아트.
- Hong, C. M.(2002), “Dance in the school curriculum of Aotearoa New Zealand”, *UNESCO Regional Pedagogical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in the Pacific*, Fiji, UNESCO.
- Long, S. D.(2015), “The arts in and out of school: Educational policy, provision and practice in Ireland today”,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8(2)*, 267-286.

Danz.(2014), Dance Facts. Retrieved from https://cdn-flightdec.userfirst.co.nz/uploads/sites/danz/files/PDFs/DANCE_Facts_2014PDF.pdf (2019.11.16. 인출).